

6·25 참전 육사 생도 상기하며 호국의지 다졌다

총동창회 - 한국국방외교협회
‘불멸의 영웅 1·2기’ 재조명 세미나
2기 생존자 장기호 응 참여 의미 더해

육군사관학교(육사) 총동창회와 한국국방외교협회가 정전 7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 호국의지 고양과 보훈 선양을 위해 지난 16일 육사에서 사관생도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생도 1·2기’를 재조명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불멸의 영웅, 생도 1·2기의 역사’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나종남(대령) 군사사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전문가와 육사 생도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세미나에는 생도 2기 생존자인 장기호 응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6·25전쟁 당시 생도들의 활약상을 상기하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지난 16일 육사 총무관에서 개최한 ‘불멸의 영웅, 생도 1·2기의 역사’ 학술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 제공

며 호국의지와 군인정신을 함양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인 호국의지를 고양하고 생도 1·2기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다음 달 1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육

사 교정에 건립된 기념비 및 6·25 전투현장을 찾아보는 현장 체험 행사와 국민 대통합 걷기대회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6·25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임관을 20일 앞둔 생도 1기 262명과 입교 25일째였던 2기 277명은 최전방 전투에 투입됐고

이 중 245명이 전사했다. 또 생도 1기는 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10일 대전에서 정식 임관을 했으나, 생도 2기는 명확한 임관 구분 없이 근무를 이어오다 육사 개교 50주년인 1996년에 비로소 ‘생도 2기’로 명명되면서 전원이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박성원 기자

국립서울현충원 호국 보훈 성지 재창조 ‘시동’

보훈부, 자문위원회 첫 회의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기본구상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지난 16일 “국립서울현충원을 호국

보훈 성지로 재창조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의 보훈부 이관이 예정됨에

따라 마련된 자문위원회는 건축·조경·도시계획·생태·관광·교통·행정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년간 활동하며 서울현충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재창조를 위한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현충원 재창조 추진 방향 발표·토론이 이어졌다. 보훈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과 대국

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기본구상’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영웅의 마지막 안식처인 국립묘지의 품격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이 즐겨 찾는 자유대한민국 상징 공간으로 조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회원과 동행한 30년,
함께 만들어갈 100년”

국방 MSP 전문기관으로 도약
지능형 플랫폼 구축 / 지원
국방 첨단 정책사업 지원 / IT 선도기업

국방가족과 미래를 위한 기반 인프라 준비, 혁신을 위한 도약
군인공제회C&C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군인공제회
C&C

<https://www.mmaacnc.or.kr>
Tel 02-2139-0513 Fax 02-2139-0519